

### 동국대 불교대 발전위 규정 대폭 간소화

8일 이사회서 결의

종합학교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불교대학발전위원회(이하 불발위)의 규정이 대폭 간소화됐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일면)는 9월 8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제294회 이사회를 열고 개방이사 선임, 분과위원 위촉, 불교대학발전위 규정 개정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분리운영하던 불교대학원초빙위 규정 및 시행세칙을 폐지, '불발위'로 일원화했다. 교원 초빙의 경우 교원초빙 시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법인임원과 불교대학장, 교원초빙 담당처장 등 5인 내외로 내부위원회를 구성기로 했다. 교원 초빙의 자율성이 높아질 예정이다. 불교대학발전위원장은 '법인 임원 중 이사장이 임명한다'로 변경됐다.

이와 함께 개방이사에는 김기우 태평관개발 대표가 선임됐다. 개방이사로 선임된 김기우 대표는 1980년 동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2001년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동아그룹 감사실장과 상임이사, 기획조정실장, 고려종합건축 대표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이사회는 새로 선임된 이사 지홍, 호성 스님과 감사 함결 스님을 각각 교육분과, 의료분과위원으로 위촉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한국피폭자 지원책 조속히 마련하라”

특별법추진회 8일 성명 발표

종교계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원폭피해자및자녀를위한특별법추진연대회의(이하 원폭피해자특별법추진회)는 9월 8일 '일본최고재판소 판결 논평문'을 발표하고 한국 정부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적극적 행동을 강력히 요청했다.

원폭피해자특별법추진회는 “그동안 한국원폭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로부터 의료비, 건강검진 등서 자국민과 차등 지원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모든 재외 국민피폭자들이 의료비 지원을 받길 기대한다”면서 “해방 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국원폭피해자 및 원폭2세 환우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한국 정부는 반드시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9대 국회는 원폭피해자를 실태 조사를 통한 건강·교육·추모사업 등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원폭피해자및원폭2세환우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심의·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박아름 기자

# “정부는 설악산을 그대로 두어라”

## 종교계·시민단체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성토

“민족의 영산 설악산이 죽어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설악산을 그대로 두어라!”

지난 8월 28일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이 가결됨에 따라 이를 성토하는 불교계와 시민사회,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 환경·시민사회·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설악산케이블카반대국민행동(가칭, 이하 케이블카반대행동)은 9월 10일 서울 명동성당서 국립공원설악산케이블카 저지를 위한 집담회를 개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불교계 대표로는 불교사회정책 연구소 소장 범응 스님과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집담회에 참석했다.

케이블카반대행동은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이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익위원회서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승인 부서인 환경부가 사업자인 양양군을 건설청하며 케이블카 추진팀을 구성·운영해 왔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환경부가 환경 파괴자가 됐고, 국립공원위원회가 국립공원 파괴정책 통과위원회가 됐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이 재앙은 설악산 케이블카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야생동물, 나아가 우리의 미래까지 모두 민영화시키고 있다. 자연은 국가나 기업의 것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부가 양양군을 직접 건설청해 “산 개발되면 ‘환경 파괴’ 맞을 것” 산악관광 진흥 정책 추진 중단해야 총회도 신불산 케이블카 반대 결의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이 그대로 지속될 경우 지리산, 속리산, 신불산 등 현재 케이블카 건설이 거론되는 곳들 모두 개발돼 ‘환경 파괴’를 맞을 것이란 우려다.

이에 케이블카반대행동은 설악산케이블카사업계획 폐기를 주장하며 정부에는 올바른 국가환경정책을 세울 것을, 최순실 강



종교계, 환경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설악산케이블카반대국민행동은 9월 10일 서울 명동성당서 국립공원설악산케이블카 저지를 위한 집담회를 개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원도지사에는 건설계획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이밖에 △산악관광진흥구역지정 및운영에관한법을 추진 중단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정연만 차관 퇴진 등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 환경위원회 등 불교계는 전국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는 9월 9일 성명을 발표하고 환경부 조건부 승인을 받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관련 국립공원위원회에 설치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조계종 환경위는 성명에서 “오색케이블카 설치 승인은 그동안 환경부가 스스로 지

켜왔던 자체 규정을 무시하고 강행한 결정”이라며 “케이블카 설치 불가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 국립공원위원회는 설치 계획을 재검토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번 승인은 환경부에서 규정해왔던 케이블카 설치 기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환경위는 “강원도 오색 지역은 산양 등 보호대상 동물 서식지이며 원시림과 고령림에 해당하는 9등급 이상의 녹지자연 보호지역”이라며 “케이블카 설치 검토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치 불가 기준 지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신불산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성문)는 9월 8일 열린 제203회 임시회에서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중단 촉구 결의문’을 채택·발표했다.

중앙총회는 결의문을 통해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10년간 2번에 걸쳐 신불산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을 파괴한다고 반려된 사안”이라며 “울산시와 울주군은 사전에 검증되지 않은 무모한 사업을 다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신성민·박아름 기자

## “韓불교사 최대 탄압 사건... 모두가 기억해야”

월정사 부주지 원행 스님 ‘법난 듣기워크숍’ 첫 발제

“2차에 수술... 자살 충동도” 사회적 관심위해 소설 준비 릴레이 강연·현장 탐방 등 10.27법난 기념사업 진행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는 9월 7일 서울 견지동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보현실에서 10.27법난 35주년 기념사업 ‘10.27을 듣는 사람들’을 개최했다. 첫 발제자로는 월정사 부주지 원행 스님이 나섰다.

면 자살충동을 느낄 정도로 힘들었다”면서 “불교계 1600년 역사에 이토록 탄압받은 적이 없다. 또 다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모두가 기억하고 관심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스님은 법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소설도 집필 중이다.

스님 발제 후에는 대학생 참가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학생들은 법난을 잘 모르고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관심 가져야 할 문제라는데 동의했다. 이제는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회장은 “작년에 10.27법난을

알게 되면서 왜 이런 사건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지 궁금했다. 청년들이 사회적 사건에 대해 무감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는 것을 느낀 자리였다”고 소감을 남겼다.

듣기워크숍은 앞으로 △9월 21일 오후 7시 서울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보현실 △10월 31일 구례 화엄사서 2차에 더 진행된다.

아울러 35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릴레이 강연과 현장탐방도 함께 실시한다. 릴레이 강연은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국가폭력과 1027법난’을 주제로 △10월 8일 오후 7시 광주 무각사 불교회관 2층 △10월 16일 오후 7시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빌딩 대강당 △10월 22일 오후 7시 전주 전북생명평화센터 등에서 각각 개최된다. 또한 10월 31일~11월 1일에는 조계사, 고양 흥국사 등 법난의 상징적 장소들을 현장 탐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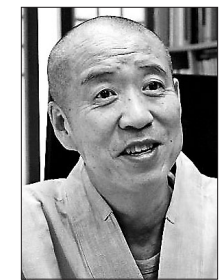
참가희망자는 인터넷(http://bit.ly/1PGfaCA) 접수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한편, 이번 기념사업은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나무여성인권상담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광주전남불교NHO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등이 공동 주관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 “깨달음, 논리적 사유로 이룰 수 있다”

현응 스님, ‘깨달음의 역사’ 발간 25주년 세미나서 주장

불교는 이루는 깨달음이 아닌 ‘이해하는 깨달음’에 요체 있어



경전이 아닌 일반 자연과학이나 진화론 등 생물학과 뇌과학을 탐구하며 사유하는 것도 훌륭한 사피”라고 설명했다.

“부처님은 고행과 선정이 아닌 논리적 사유와 성찰로서 깨달음을 얻었다. 불교의 요체는 ‘이루는 깨달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깨달음’에 있다.”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사진)은 자신이 1990년 펴낸 ‘깨달음의 역사’ 발간 25주년을 맞아 9월 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불교의 깨달음은 이해의 영역에 포함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현응 스님은 “깨달음과 그 역사, 그 이후”라는 기초발제를 통해 “부처님의 보리수 아래의 깨달음을 서술한(마하박가)를 보면 ‘삶의 괴로움을 연기적으로 즉 원인, 조건, 결과, 생성, 소멸의 관점으로 파악해 통찰로 이해로 해결하는 것’이라며 “부처님은 깨달음을 고도로 수련된 높은 정신세계를 이루는 것이라 하지 않고, ‘잘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인이 잘 깨달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노력해야 할까. 현응 스님은 부처님 당시부터 진화돼 왔던 다양한 모습의 연기론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

다. 그와 동시에 현대인의 삶의 문제를 깊은 사유와 탐구해야 한다고 했다. 스님은 “연기, 공, 자비 등 불교적 문제 의식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불교

그러면서 “깨달음과 ‘역사’의 결합을 강조했다. 현응 스님은 “‘깨달음’은 연기를 잘 이해한다는 영역이고, ‘역사’는 방향과 내용을 선택하여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이라며 “‘보디(깨달음)만 있고 ‘사트바(역사)’의 영역이 없으면 소승적이라 할 뿐이다. 또한 보디가 없는 역사행은 범부중생의 삶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깨달음과 역사는 다른 차원의 영역이지만 이 둘을 결합하면 ‘보디사트바(보살)가 된다”면서 “보살은 역사성으로부터 해탈의 자유를 담보하면서, 동시에 역사 속에서 목표를 세워 행하는 삶이다. 이것이 보살의 머물지 않는 구체적인 자비행”이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2015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헤인 스님 한국총장

###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 www.njsdfx.co.kr

## 한국 유학생 중국 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 ① 특차모집

학과	학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석사과정	3년	10명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매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 ② 학교소개

-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의과대학
-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 군입대 연기 가능
-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 학자금 대출가능
- ▶ 서울 시내 대학 편입가능
-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 ③ 지원자격

-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 주시스님 추천자

### ④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 모집기간 : 2015년 9월 25일까지 수시전형

### ⑤ 문의처

- ☎ 전화: 86-25-84028478  
86-13-585195431
- ☎ 팩스: 86-25-84028479
-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4 2층)
- 전화: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02)511-2028
- http://www.njutcm.co.kr
-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헤인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